

‘총장님은 지금 외부회의 참석 중’

월 10여차례 참석...대학경쟁력 약화
지자체·사회단체, 방패막이 활용도

광주·전남 지자체와 사회단체 등이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위상제고와 참여도움을 위해 대학 총장을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위촉, 총장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역 주요 대학 총장들의 경우 최고 20개 가까운 위원회나 협의회에 위촉을 받아 많은 한달에 10여차례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원회 역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대학 총장이 참여하다 보니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지만 이같은 현상은 지자체나

각종 사회단체가 대학 총장의 명성을 자신들의 사업 추진에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또 최고 한달에 10여차례씩 외부 위원회·협의회에 참석하면서 대학 업무에도 소홀해지고 있다.

지역 학계 및 시민들은 대학 총장이 총장 업무에 전념해 대학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위촉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정재 전남대 총장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직·간접적인 위촉을 받아 모두 19개의 위원회나 협의회에 위촉이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사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공동대표 △광주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아시아문화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광주시 남북교류위원회 고문 등이다.

대부분 대학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일부는 굳이 총장이 아닌 처장급 보직교수가 맡아도 될 일이다. 강 총장은 지난해 여수대와 통합을 추진할 당시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내려올 공공기관을 유치할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느라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총장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1년 만에 의장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주홍 조선대 총장은 16개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활동중이다. △광주시배구협회 회장 △광주시 체육발전위원회 위원장 △광주은행장학회

이사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공동대표 및 의장 등이다.

김 총장은 지난 2월 강정재 전남대 총장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의장을 맡은 뒤 그동안 혁신협의회 의장이 광주상공회의소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선거를 주관했다가 부정선거 시비를 둘러싼 후보자간의 갈등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임병선 목포대 총장은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자원위원 △영산강환경관리청 환경영향평가위원 △해안수산부 중앙연안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재기 순천대 총장은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공동대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이사 △전남테크노파크 이사 △광주테크노파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꿀맛 단비’

강진 42mm 장흥 38mm 내려
식수·농업용수난 일부 해소

봄가뭄에 시달리던 전남지역에 4일 하루 동안 평균 30mm 안팎의 단비가 내리면서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소속산도에 58.5mm의 비가 내리고, 강진도 42.0mm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전남지역 전체적으로 평균 30.2mm의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화순과 나주, 목포, 여수, 보성, 순천, 고흥 등 전남도내 7개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주암댐에는 10만 여의 물이 모여들면서 수위가 하루 만에 1cm가량 높아졌다. 주암댐이 가득 할 경우 총 수량은 7억7천만이다.

주암댐관리단 관계자는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22.3%로 낮은 편이지만, 밤늦게까지 비가 계속 온다면 2~3일 뒤에는 수위가 3~4cm가량 더 높아지고 저수율은 24~25%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태라면 앞으로 8~9개월 가량은 식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째 7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 흑산면이나 5개월째 5일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완도 금일읍 등 만성적인 식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수 제한 급수가 완화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린 비가 수원으로 모여 식수로 사용되려면 2~3일이 필요하지만 이번 비로 섬지역 제한 급수가 많이 해소되고, 수질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분	강우량
4일 오후 5시 현재	
광주	20.9
강진	42.0
장흥	38.0
순천	37.5
광양	36.0
보성	34.8
화순	34.7
고흥	33.6
신안	32.3
해남	32.3
완도	32.2
나주	31.8
진도	31.3
구례	31.0
목포	30.0
여수	29.9
영암	27.8
함평	27.3
무안	26.4
곡성	24.0
담양	23.0
장성	18.0
영광	10.0



봄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린 4일 광주시 남구 화정동 농민들이 상추밭을 덮었던 비닐을 걷어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라빛 248조...1년새 45조 늘어

작년 GDP 대비 30.7%...국민 1인당 513만원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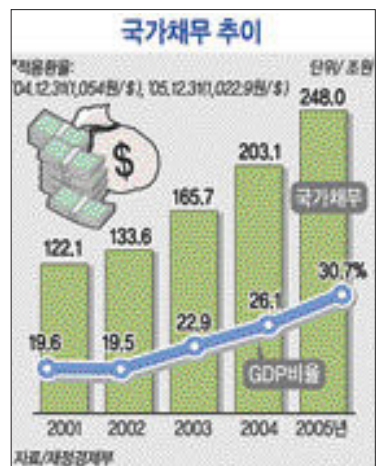
국가 채무가 작년에 45조원 가량이 늘어나면서 250조원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248조원을 기록, 전년말보다 44조9천억원(22.1%)이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중앙정부의 채무는 238조8천억원으로 42조7천억원이 늘었다. 작년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0.7%에 달하는 수준으로

2004년 26.1%보다 4.6%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IMF방식과 달리 외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기업특별회계 등을 국가 채무에서 제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하면 GDP의 20.3%로 계산됐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나라빛은 513만원꼴로 전년 422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국가 채무는 2001년말 122조1천



억원에서 2002년 133조6천억원, 2003년 165조7천억원, 2004년 203조1천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의선 사장 出禁

현대차 관련 5개社 압수수색

검찰이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현대차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5개 기업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현대차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사용 등에 연루된 압수수색 대상 기업의 일부 임직원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급경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원연원21, 원연원2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씨엔씨 캐피탈, 문화창투, 큐캐피탈홀딩스 등 5개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3면〉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5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들 회사의 일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

오늘 맑고 포근...“나무심기 좋다”

‘청명’(淸明)이자 식목일인 5일, 광주·전남지방에는 아침부터 날이 개고 기온도 그리 낮지 않아 나무심기 좋은 날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5

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고 오후부터 맑겠다”고 예보했다. 5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6~10도, 낮 최고 기온은 14~18도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4일 낮을 기해 전라

남도 해안지방과 대륙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평균 풍속 초당 14m)를 내리고,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편, 광주에 내려졌던 호우에 비특보와 대륙산도·홍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4일 오후 4시께 해제됐다. /이승배기자 lsb54@

제2회 보성농차마라톤대회
4월 14일 마라톤
www.boseongmarathon.net

제51회 호남예술제
4월 10일~18일 합주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222-8111

후암대학 동학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am.ac.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금융정보를 가장 먼저
한국물가정보
TEL:1577-7300 FAX:152173-8832

난, 변하고 싶어

내가 변덕쟁이랴?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톡톡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upharm.co.kr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 변질할 위험이 적어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들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